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FRIDAY, April 25 2025 Vol. 958

## “부활은 기독교를 만든 원동력” 남가주 부활절 연합 예배

“신앙의 핵심은 부활,  
부활의 핵심은 영생”

남가주 교계가 부활절을 맞아  
각 지역별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 LA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 주관으로 2025년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4월 20일 오전 6시에 평화 교회(김은목 목사)에서 거행됐다.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 회장)는 ‘부활의 복음’(요한복음 21:1-6)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며, 부활 복음의 핵심은 ‘영생’이다.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이어 “부활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변화’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았다.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의 세 번의 질문에 동일하게 응답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은혜로 변화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 주관으로 2025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평화교회에서 거행됐다. ©기독일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은 ‘재기’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사람은 누구나 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며 “세월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옛것은 잊고 새롭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불들고 계속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OC교계 부활절 연합예배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 교계 부활절 연합예배가 20일 오전 5시 30분에 나침반교회(민경업 목사)에서 거행됐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고린도전서 15:50-5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민경업 목사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며 부활의 메시지가 주는 희망에

대해 말했다.

민경업 목사는 “희망은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강도들과 함께 처형 당하면서 모든 꿈

과 희망이 무너지는 절대 절망의 현실을 마주했다. 그런데 절대 절망의 현실은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현실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육신은 썩고 시간 앞에 무력하며 결국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 땅의 삶만을 보면 모든 인간의 끝은 절대 절망이다”라고 일깨웠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장차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날에는 사망이 조롱당하고, 희망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희망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며 소망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 목사는 “모든 성도는 이 절대 희망 안에서 견고해져야 한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자”고 권면했다.

토마스 맹 기자 → 3면에서 계속

## 英 대법원 “女 법적 정의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

### 여성 인권과 법적 명확성 위한 역사적 판결

영국 대법원이 최근 ‘여성’의 법적 정의에 대해 생물학적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여성 인권 보호와 법적 명확성 회복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8년 공공 기관 이사회에 성별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률’(Gender Representation on Public Boards Act

2018)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여성’의 정의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받은 트랜스젠더를 포함시켰다.

이에 여성인권단체 ‘포 위민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는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두 차례 패소한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가 마침내 승소했다.

대법원 부소장 패트릭 호지(Patrick Hodge) 경은 판결문을 통해 ‘법적으로 ‘여성(woman)’과 ‘성(sex)’은 2010년 평등법 아래에서

생물학적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법적 성 개념을 무너뜨릴 경우, 법률 적용이 모호해지고 비논리적으로 변질된다”고 밝혔다.

호지 경은 특히 “성별 재지정(gender reassignment)은 평등법에 따른 독립된 보호 특성으로, ‘생물학적 성’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sex)’ 개념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집단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 12면에서 계속



©pixabay

## 미주기독일보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0년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213.820.3704  
MARC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제74회 국가기도의 날**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롬15:13

2025. 5. 1(목) 오후 7시,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주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충현선교교회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청교도 신앙회복운동 월드쉐어USA CMF 가정 사역원  
Soon Movement Global 남가주 장로 성가단  
협력 단체: 남가주 각 지역 교회, 살롬센터, CBS 종보기도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협력 언론 기관: 크리스천 비전, 크리스천 워클리, 기독일보, Holy City Vision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챤헤럴드, CBS TV, 조선일보

NATIONAL DAY of PRAYER

## 성도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실 두 가지

본지 주최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토랜스제일장로교회, 5/26~27

“성도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들은 모르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려 그래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치적 논쟁도, 사회학도, 문화 심리학도, 신학 논쟁도 아닌, 성경 이야기라고 김귀보 목사는 말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다른 전문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성경 이야기”의 전문

가가 되어야 한다고.

또한, 코로나 이후 작은 교회와 큰 교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설교”에 있다며 성경 이야기가 살아 있는 이야기로 생생하게 다가오게 설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

대의 특별한 문화, 상황, 사건, 인물, 배경, 내용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생동감과 감동이 문자 안에 갇혀 버렸다. 문자를 쪼개고 과해져서 약상한 뼈만 남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 힘내라고 외치는 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됐다. 내러티브 설교는 그 이야기를 찾으려

는 노력이다. 문자화된 성경의 행간을 읽고, 글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그 당시 성경 속 인물들의 생동감을 되찾는 것이다.”

기독일보에서는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 교회)를 초청해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26일~27일(월~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랜스 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진행되며,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로부터 내러티브 설교 작성성을 위한 준비, 본문, 구성, 실습까지 배우게 된다. ©기독일보



김귀보 목사는 전 교인이 유학생 15명이던 달리스 큰나무교회에 부임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으로 섭기며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때의 특별한 문화, 상황, 사건, 인물, 배경 등을 찾아내 성도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돋는 설교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 저서로는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거침없는 인도하심』 등이 있다.

세미나 등록은 QR 코드로 할 수 있으며, 무료이다. 접심과 교재가 제공된다. 주디 한 기자

일정: 5월 26일~27일(월~화)

오전 9시~오후 4시

장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문의: 213-739-0403.

## 지구촌교회, 김우준 목사 담임 청빙 결정

지구촌교회가 20일 오후 분당채플 본당에서 임시 제직회 및 사무총회를 열고 김우준 목사를 제4대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성도 97.6%가 청빙에 찬성했다.

지구촌교회는 지난해 10월 미래준비위원회(청빙위원회)를 출범해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했다. 교

회 측은 “분명한 원칙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 과정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김우준 목사를 제4대 담임목사 최종 후보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김우준 목사는 UC 버클리에서 학사,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석사,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와 철학박사

(Ph.D)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열린 지구촌교회와 위성된 지구촌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으며, 현재는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김우준 목사의 목회 철학은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한다. 지구촌교회는 “이는 ‘평신도 선교사(제자)가 되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제자 삼는) 교회’라는 지구촌교회의 비전과도 깊이 맞닿아 있어 지구촌성도들로 하여금 한층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는 “김우준 목사님이 이상의 더 나은 선택은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비하신 지도자를 잘 분별해 선택하셨음을 축하 한다”며 “김우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이며 부흥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진영 기자



拉斯베가스 한인교회들은 중앙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렸다.

## 拉斯ベ가스교협 부활절 연합예배

拉斯ベ가스 한인교회협의회는 20일(주일) 오전 6시,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임인철 목사)에서 2025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수 부활하셨다’(마가복음 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임인철 목사는 “부활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임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임사체험이나 일시적인 생명 회복이 아닌,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며 “이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며, 이는 기독교가 유일한 참 구원의 종교임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라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임 목사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예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며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는 라스베가스 지역 여려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토마스 맹 기자

## OTEFE 재단 한인 장학생 모집

OTEFE(Opportunity to Earn Future Education) 재단은 한인 장학생을 모집한다.

명으로 최소 1,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지급된다.

응모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께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 info@otefe.org

OTEFE 재단은 우수 한인 학생,

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 위

해 설립된 비영리 장학재단이다.

영광”이라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임 목사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예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며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는 라스베가스 지역 여려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토마스 맹 기자

## 아이티 소망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연합 선교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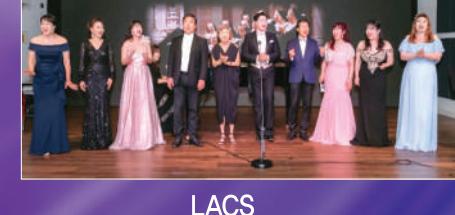
#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25.5.18(주일) 6:30PM

미주 평안 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주사랑 나눔 여성 선교합창단



LACS



하나콰이어



LA 남성 선교합창단

**주관** : World Share USA    **출연** : 주사랑 나눔 여성 합창단, 하나콰이어, LACS, LA 남성선교합창단  
**후원**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 신앙회복 운동본부, 다민족 연합 기도운동, 미주한인군목회, 기독일보, 크리스천워커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협력교회** : 에온 교회, 나침반 교회, 코너스톤교회, 갈보리 선교교회, 가스펠교회, 더 섬기는 교회, 헤론교회, LA 시티교회, 미주평안교회,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주님세운교회, 남가주새누리교회, 가주 목양교회, 로뎀교회, 샘물교회, 예수로교회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 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 1면 기사 <부활은 기독교를...>

에 이어서

LA 동부 부활절 연합 예배

LA 동부지역 교회들은 2025년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드렸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선호 목사(늘푸른교회)는 “초대교회에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 없었지만, 오직 부활절만이 중심이었다. 부활의 아침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그 믿음을 고백했다”며 “부활은 기독교를 만든 능력이며,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는 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조명했다.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초기에 펍박을 피해 지하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던 초대 공동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제가 거기서 놀랐던 거는 그들이 잠을 자던 그 방이다. 그 방의 길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았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수 세대를 걸쳐서 이 지하에서 살면서 그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OC교계 부활절 연합예배가 20일 오전 5시 30분에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거행됐다. ©OC교협



베이커스필드 지역 교회가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드렸다.

먹는 것이 빙곤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키가 자랄 수 없어서 이렇게 작아진 것이라고 했다.”

“로마에도 비슷한 곳이 있다. 한 300년, 10세대에 걸쳐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 그들이 죽어간 묘지는 아주 작았다. 제대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이 작아졌다.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소경으로 살아간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할 몸을 기다리고, 죽어도 살 것을 믿었다.”

베이커스필드 부활절 연합 예배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8개 교회가 함께 오전 6시 지구촌교회(김준태 목사)에서 베이커스필드 한인교역자협의회(회장 고의용 목사, 총무 박순종 목사)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다.

고의용 목사는 ‘내가 보았고 들었고 성령충만으로 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충만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며, 성령

충만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 목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행4:24)을 인용하여, “성령이 생각과 가치의 기준, 과거 삶의 경험,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를지라도, 함께 어우러지고 한 마음이 된다”고 말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고 목사는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가정,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 “예수 부활하셨네” 뉴욕·뉴저지 한인 교회 부활절 맞아 부활 신앙 고백

2025년 부활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

한인동산장로교회에서는 이풍삼 담임목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 예수”(고전 15:20-26)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주일예배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인류에게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분이며, 각각 그 차례에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 헛되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무의미하다”며 “우리는 이 땅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익어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는 “부활의 첫 열매”(고전 15:20-24)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생명과 소망의 근거가 됨을 강조했다.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나셨느니라”(마 28:5-6)라는 본문을 통해 부활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양 목사는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지금도 모든 신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떤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이 부활의 확신이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초대교회 박찬섭 목사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마가복음 16:1-7)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소식을 선포했다. 박 목사는 “여인들이 무덤에서 들은 천사의 외침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이었다. 그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며 능력”이라며 “모든 성도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는 “제

삼일의 비밀”(누가복음 24: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3일의 법칙’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허 목사는 “성경에서 3일은 고통, 인내, 그리고 승리를 상징한다”며 “예수님도 금요일의 고난, 토요일의 침묵을 지나,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 ‘3일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요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은 반드시 온다. ‘그래봤자 금요일이다. 3일만 참자’는 신앙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도들을 격려했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이종식 목사는 “살아계신 예수님”(마태복음 28:1-5)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기쁨과 확신을 회복했다”며 “오늘날 우리 역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모든 신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 하나되어 전진하는 미주성결교회!

Advancing Together As One!

예수 부활하셨네



제46회 총회장  
김종호 목사



우리는 이미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하나되어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되어 전진하는 미주성결교회!”

이 외침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미주성결교회를 전진하게 하는 큰 걸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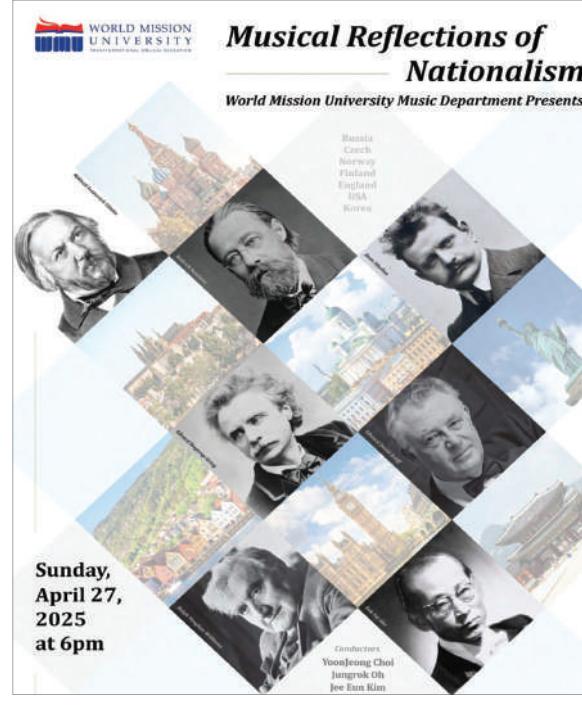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미주성결교회

# 월드미션대학교 제31회 학생 음악회 4월 27일



월드미션대학교 제31회 학생 음악회가 4월 27일(주일) 오후 6시 한길교회(고광선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음악으로 표현된 국민주의(Musical Reflections of Nationalism)”로 미하일 글린카 작곡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Mikhail Glinka - Ruslan and Lyudmila - Overture), 스메타나의 몰다우, 노르웨이의 작곡가 애드바르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Peer Gynt' Suite No.1, 2),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Finlandia), 랄프 본 윌리엄스 그린 슬리브스(Green-sleeves) 환상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의 윤임상 교수는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편법 속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 목

숨을 바친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들이다. 서양 음악사적으로도 지난 19세기 초반부터 타민족으로부터 고통받는 아픔을 겪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음악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일들이 음악가들로부터 진행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들에서 전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하나의 악파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일컬어 국민악파(Musical Nationalism)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족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오늘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태동된 안익태 작곡가의 한국 환상곡(Korea Fantasy)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곡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번 연주회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하니, 큰 기대가 앞선다. 이렇게 한국을 포함해 국민악파 작

곡가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음 또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고 설렘을 전했다.

윤 교수는 “이번 음악회를 위해 특별히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딕킨슨(Emily Dickinson)과 민족시인 월트 휘트만(Walt Whitman)의 시를 소재로 월드미션대학교의 Edward David Zeliff 교수가 작곡했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자연재해, 경제적 혼돈으로 인해 인류는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잠시나마 그 아픔들을 잊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을 함께 꿈꾸고, 노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민 여러분들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문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213-388-1000).

## 썸 · 연애 ·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크里斯천을 위해

### 언니가 동생에게 이야기하듯 친근하게 풀어나가는 연애와 사랑

연애와 결혼을 고민하는 크리스천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랑을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책 『비포 매리지』가 출간됐다.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비하신 만남을 어떻게 분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총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애의 목적을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썸과 데이트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책임 있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준다. 특히 룻기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며 ‘크리스천의 연애와 사랑’에 대한 성경적이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산나의 하나님 말씀”과 “산나링크”로 많

은 크리스천과 소통하고 있는 저자는, 마치 교회 언니가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듯 친근하고 재미있는 말투로 내용을 풀어간다.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숨에 읽히며, 특히 각 주제마다 실린 나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여백도 제공한다.

저자의 따뜻한 시선과 실제적인 조언이 담긴 이 책은 사랑을 꿈꾸지만 막연한 불안과 고민을 가진 청년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저자 소개 호산나

한동대학교(BA)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MA)

석사를 마쳤다.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심는 농부이자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으로 계획하신 결혼으로 인도하고 싶은 결혼 전도사이다. 현재 ANC 온누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며 유튜브에서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산나의 하나님 말씀”(@hosannabible)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어른들을 위한 채널, “산나링크”(@sannalink)를 운영 중이다.



## 아름다움의 향연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연주회

은혜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풀러턴 칼리지의 정승재 교수(바이올린)가 ‘Orchestra Collective of Orange County’와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협연한다.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는 3개의 악기를 위한 협주곡으로 한 멜로디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다양한 음색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 협연은 피아니스트 Wan-Chin Chang (Soka University, Mira Coast College) 교수, 첼리스트 Laszlo Mezo (Pacific Symphony, Chapman University) 교수와 함께 하며 지휘는 클래어 몬트 지휘 교수인 David Rentz가 한다. 이 공연은 브레이켓은 Curtis Theatre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아예 위치한 Curtis Theatre에서 4월 26일 수 있다.



정승재 교수가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를 협연한다.

(토) 오후 7시, 27일(일) 오후 3시에 하며 티

교수인 David Rentz가 한다. 이 공연은 브레이켓은 Curtis Theatre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아예 위치한 Curtis Theatre에서 4월 26일 수 있다.

김민선 기자

## 주님의 영광교회 5월 부흥회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특별한 부흥회가 열린다. 세계로금란교회의 주성민 목사를 초청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5월 1일~ 4일까지 요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5/1(목) ‘에브라임의 축복’, 5/2(금) ‘축복의 가문을 만들자’, 5/3 (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5/4(주일) ‘믿음의 말’이란 소

주제로 진행된다. 주성민 목사는 북한에 200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문의: 213-749-4500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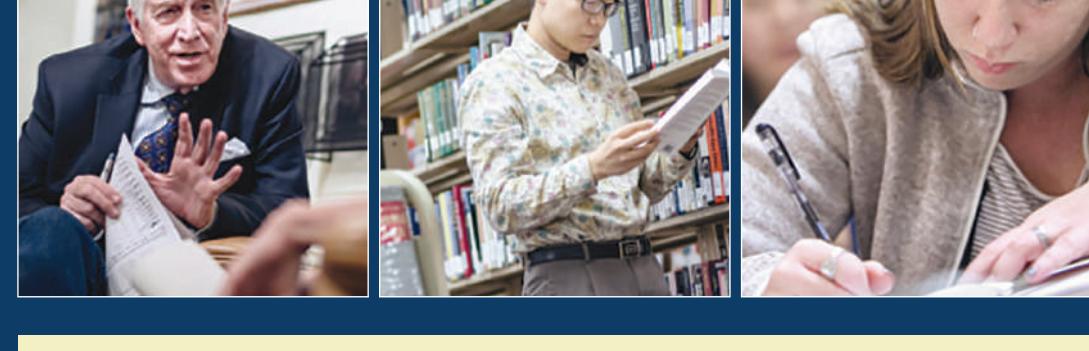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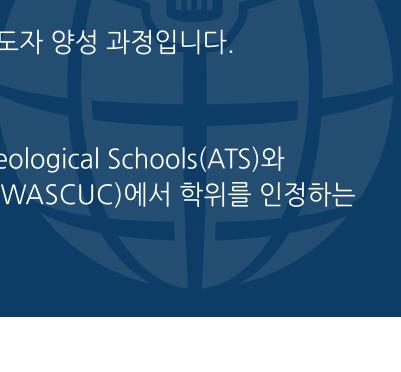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 단체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 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 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제 1회  
시니어  
스크린 골프 대회

2025년 5월 20일 (화)  
9AM - 12PM  
Golf Plus La Mirada

150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83

참가비 \$20

참가인원 40명 한정

참가대상 만 65세 이상 시니어

상품 각 조 1등 홍삼 3개들이 1세트  
각 조 2등 건강 검사 키트 4종 패키지  
참가 전원 풍성한 구디백

\*한 조에 4명씩, 총 10개 조

참가문의 888-847-3098

\* 참가비는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참가자 성함으로 100% 전액 기부됩니다



# 보수 교계·시민단체, 공정선거 위한 개혁 촉구

##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개표 전환해야… 국민 주권 회복 절박한 과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와 전국 기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4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전환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사이의 역사적 대결이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기”라며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 주권 싸움의 본질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간섭과 이에 편승해 권력을 유지해온 친중 정치세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의 체제 붕괴 조짐과 이에 연계된 국내 세력의 쇠퇴를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선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사전투표 조작, 전자개표기 왜곡, 외국인 투표 참여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의 이후 제기는 묵살되고, ‘부정선거’라는 표현조차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조기대선을 강행할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국민의 주권 아래 놓인 행정기구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운영 방식은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관

위 개혁도 핵심적인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성명 참여 단체들은 “이번 조기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주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대대적인 참여와 종결기를 통해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개혁 명령을 선언했다. “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며, 전자개표기를 금지하고 모든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선거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며, 대선 후보들은 이 개혁에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국제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기후재난과 경제 위기, 군부 분열 등으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은 전략적 단절에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친중 정치세력과 관련된 모든 인물, 자금, 홍보체계를 절저히 조사하고 반역 혐의로 법적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교계 단체는 물론, 전국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바로세우기연대, 한미동맹강화재단, 대한민국자유대연합 등 약 2,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요약.

### [공정선거 촉구 국민성명서]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싸움이며, 진실과 거짓 사이의 역사적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교한 순국열사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유 법치 수호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이번에 목숨까지 바쳐 싸웠습니다. 이제 깨어난 국민은 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주권 싸움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과 거기에 줄을 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친중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독재체제에서의 비효율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기생하던 국내 세력도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여름 차례의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자수 조작, 전자개표기에 의한 왜곡, 가짜투표지 투입, 외국인 선거참여 허용 등에서 노출된 불공정과 부정불법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이 선관위와 법정에 검증과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였습니다. 도리어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심지어 부정선거라는 용어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암박을

받는 경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경지에 놓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행사에서 가장 중대사는 국민투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무결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수단이 국민의 주권행사에 부적절하거나 거기에 상당한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 이를

시정 혹은 폐지할 권리가 투표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조작과 왜곡의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방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적 명령을 선포합니다.

● 1. 우리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도록 조치하라.

2.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모든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어떠한 구조도 부정선거에 이용되지 못하게 즉시 개혁하라.

3. 사전투표 제도는 폐기하라. 이는 부정의 시작이었고, 조작의 근원이었다. 선거는 본 투표 하루 혹은 이를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이다.

4. 개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와 정부는 독일과 대만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금하고, 철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며,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 현장에서 공개 수개표로 투명하게 진행하라. 5.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에 전적으로 협조하라. 6. 선거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외국인의 투표 참여를 막고, 선거권 낭용 방지 제도를 즉시 정비하라.

7. 사전투표폐지와 완전히 수개표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할 것이 확정되기까지, 국민은 모두 선거 불참 운동과 헌법적 시민불복종 행위로 주권을 지킬 것이다.

● 2. 지금이 기회다 - 중국의 그림자가 걸리고 있다.

1. 중국은 기후재난, 경제 마비, 군부 붕괴 조짐 등으로 체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2. 미국을 포함 자유주의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의 전략적 단절을 실행 중이다. 3. 중국의 힘에 빌붙었던 국내 세력은 더 이상 외부 지원도, 내부 명분도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 및 친중 정치세력과 연결된 모든 인물 · 자금 · 홍보체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는 국가보안법 상 반역 혐의로 심판하라.

4. 이제는 모든 국민이 종결기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공정선거를 되찾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김세환 기자

## 김양재 목사가 말하는 ‘건강하게 화내는 법’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가 17일 ‘김양재 목사의 OST’라는 코너에서 ‘건강하게 화내기’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심리학자 베벌리 엔젤은 화에도 건강하고 건설적인 화가 있고, 병적이고 파괴적인 화가 있다고 말한다”며 “건강하고 건설적인 화는 상대와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관계를 촉진하는 도구가 된다”고 했다.

이어 “반면에 병적이고 파괴적인 화는 누가 봐도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화를 내

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재 목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였다. 성벽이 다 지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방해꾼 산발랏과 계셈이 느헤미야에게 만나고 청한다”며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직 성벽 역사에 전념할 때라며 4번이나 거절한다”고 했다.

이어 “초청을 계속 거절하자 산발랏은 그를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역모의 소문을 낸다. 소위 악성 루머, 가짜뉴스로 곤경에 빠뜨린 것”이라며 “산발랏이 왜 이토록

느헤미야를 괴롭혔는가? 느헤미야로 인해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불안감을 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험이 없는가. 상대방은 아무 뜻도 없이 한 말인데, 내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더 화를 내고 상대를 무안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건강하게 화내는 방법에 대해 “일단, 상대방에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문제를 인식시키고, 감정과 필요를 전달했다면 이제 화를 풀어야 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

이 자기를 화나게 한 상대에게 별을 주고 싶어서 계속 화를 불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음모가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략임을 알았다”며 “그래서 산발랏과 달리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훼방받지 않도록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며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략에 휘둘리지 말고 당

당하게 맞서라는 것이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재 목사는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화나게 해서 예수님이 믿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이 말이 분해서 교회를 그만다니고 가정 회복을 포기한다면 사탄의 음모에 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한 화를 내는 것이 음모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тен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in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콜라보레이션**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 korean.masters@biola.edu | biola.edu/talbot-korean

# S 사랑하는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He is Risen*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수 부활 하셨네

## 갈보리 선교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8:00am  
2부: 11:00am  
금요성령집회 08:00 pm  
새벽예배 (월~금) 5:30am  
교회학교 유/초등부 11:00 am  
주일예배 중/고등부 11:00 am  
EM청년부 09:30 am  
금요모임 유/초등부 08:00 pm  
중/고등부 08:00 pm  
제자훈련 사역반 매주 수 10:00 am  
& 성경공부 새생명반 매주 수 10:00 am



심상은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722-4805

예수 부활 하셨네

## 拉斯베가스 우리좋은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30 본당  
2부 오후 1:30 본당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교육관  
유아/유치부 오전 11:30 교육관  
수요예배 오후 5:00 본당  
새벽예배 화~토요일 오전 5:50 본당



임명진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email: 329sunkyu@gmail.com

예수 부활 하셨네

## 拉斯베가스 필그림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요일 오전 5:30



남덕종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3840 El Camino Rd, Las Vegas, NV 89103  
T. (702)686-0691 hope21ch@naver.com <http://pilgrimch.com>

예수 부활 하셨네

## 拉斯베가스 즐거운제자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요일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예수 부활 하셨네

## NKIA COLLABORATION

North Korean in America(엔키아 선교회)

예수 부활 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Kim Young Koo

### 주소 및 전화

24325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예수 부활 하셨네

## 올림픽장로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첫 남미 출신 교황 긴 여정에 마침표



프란치스코 교황 © 뉴시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1일(현지시간) 오전 7시 35분, 바티칸 자택에서 선종했다. 향년 88세.

교황은 지난 2월 14일 호흡 곤란 증세로 로마 제렐리 병원에 입원해 기관지염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입원 중 두 차례의 고비를 넘기며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 세계의 기도 속에 상태가 호전되며 3월 23일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교황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훌체어에 앉아 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부활절 주일인 4월 20일로, 성 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신자들을 향해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축복을 전했다.

본명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22세에 예수회에 입회한 그는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후 부에노스아이레

스 대주교로 활동하며 빈민과 소외계층을 향한 헌신으로 국민적 존경을 받았다.

2013년 3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고령을 이유로 사임한 후 열린 콘클라베에서 역사상 첫 남미 출신 교황이자 예수회 출신으로 선출되며 266대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본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자신의 교황명으로 선택해, 가난과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재임 12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 기후 위기, 가난, 난민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 고통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전쟁 종식과 난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활동에 집중했다.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즉위 이듬해인 2014년 8월, 제6회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참석과 윤지총 바오로 등 124위 시복식 집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홍은혜 기자

## 남아공서 납치됐던 美 선교사 총격전 끝에 '기적 생환'



미국 선교사 조쉬 설리번(가운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의 가족. ©SNS

미국 테네시 출신 선교사 조쉬 설리번(34)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트케이프 주의 거베하(GQEGERHA) 인근 마더웰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지 5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남아공 경찰청(SAPS)은 최근 성명을 통해 설리번 목사가 총격전 끝에 무사히 구출됐으며, 해당 작전에서 용의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 ◆ 격렬한 총격 끝에 기적의 생환

경찰에 따르면, 설리번 목사는 거베하시내 쿠와마자키(KWAMAGXAKI)의 한 은신처에서 억류 중이었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던 중, 감시 중이던 차량에 있던 용의자들이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하면서 총을 발사했다. 이에 경찰이 정밀 전술로 대응하며 고강도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명의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 ◆ 설리번 목사의 납치 이후 현신적인 사역

설리번 목사는 아내 메이건(MEAGAN)과 함께 2015년 성경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 남아공을 방문했다. 당시 6개 월간 인턴십을 수행한 뒤, 2018년부터는 마더웰 지역에 정식으로 정착해 교회 개척 선교사로 사역을 이어왔다.

펠로우우십침례교회에 따르면, 설리번 목사는 보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을 위해 현지 언어인 코사어(XHOSA)를 2년간 배우며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마더웰 지역에 펠로우우십침례교회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까지 활발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홍은혜 기자

설리번 목사의 납치 이후, 미국 테네시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p><b>LA 백송교회</b>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p> <p><b>LA 씨티교회</b>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p> <p><b>나성영락교회</b>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p> <p><b>동양선교교회</b>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omcoffice1@gmail.com</p> <p><b>새 한우리교회</b>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p> <p><b>올림픽장로교회</b>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c@gmail.com</p> <p><b>주님의 영광교회</b>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b>한길교회</b>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p> <p><b>한마음제자교회</b>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p> <p><b>가디나선교교회</b>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 310)532-0191</p>	<p><b>김성식</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버이예배 주일 오후 2:00 청년기초성경부 주일 오후 2:00 -로 오후 3: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토 오후 9:00</p> <p><b>김기섭</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9:30 (화-화예배) 3부예배 오후 9:30 (화-화예배) 대학성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www.Lasang.org</p> <p><b>LA 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위한 사랑의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2233</p> <p><b>한천영</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0:50 청소년예배 오후 10:50 토요전세복예배 오전 10:30</p> <p><b>갈릴리선교교회</b>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b>진유철</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세번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b>김성원</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세번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b>남가주새소망교회</b> 예배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p> <p><b>김일형</b>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p> <p><b>새생명오아시스교회</b>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p> <p><b>김재연</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p> <p><b>영생교회</b>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p> <p><b>서사라</b>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온기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p> <p><b>주님의 사랑 교회</b>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p> <p><b>김창섭</b>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온라인)</p> <p><b>세계선교교회</b>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213) 388-1927 www.wmcla.com</p> <p><b>한현종</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p> <p><b>크렌셔장로교회</b>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1 T. (213) 407-1600</p> <p><b>기독일보</b>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b>국윤권</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후 11:30</p> <p><b>충현선교교회</b>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b>이황영</b> 담임목사 주일부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주일 아침 9:3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p> <p><b>남가주기쁨의교회</b>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p>
---	---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예배	(토) 오전 9:30	세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예배	오후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 예배			D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정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encecgc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기도회(금)	오전 5:30
GRC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로예배(아침)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도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성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후 11:00
천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성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후 11:00
천년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 breadhou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정년예배	EM 오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 中, 5월 1일부터 기독교 탄압 강화하는 금지 조치 시행



기독교 박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기독교인(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오픈도어.

외국 선교사들의 설교와 종교단체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중국 공산당이 5월 1일부터 기독교 탄압을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미션 뉴스네트워크(Mission News Network)를 인용해 “새로 개정된 규정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 허가 없이 설교를 하거나, 종교 학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서적을 제작 또는 판매하거나, 종교 기부를 받거나, 중국 시민을 종교 신자로 모집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성직자는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설교할 수 있으며, 모든 설교 내용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중국 국영 언론이 이러한 제한 조치가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경계 밖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종교단체들은 종종 정부에 의해 사이비 종교 또는 극단주의로 낙인찍힌다. 시 주석은 2016년에 처음으로 “종교적 충성심을 공산당의 우선순위에 부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종교를 ‘중국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 결과, 개신교 삼자교회 및 중국기톨릭애국회와 같은 국영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한 ‘승인된 통로’로 부상했다.

독립 가정교회 운동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을 특히 크게 받았다. 중국 당국이 ‘정치적 안보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체들을 해체하려

하면서, 가정교회 신자들을 겨냥한 단속과 체포가 빈번해졌다.

워싱턴스탠드는 “올해 초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2024년에 이러한 단체들을 해체하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도가 증가했다’고 노골적으로 전했다”고 지적했다. 공안부 역시 “독립 종교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축소시키는데 전념하는 감시기술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광범위한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움직임과 단체를 감시하고 공산당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와 관련된 개인’이나 ‘국가가 승인한 틀 밖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엄격히 통제되는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 대표들은 “새로운 규정은 외국과의 교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겠지만, 종교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블스포츠아이’(Bibles for China)와 같은 단체들은 이미 국가의 제재를 받는 조직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운영에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선교 노력, 특히 방문, 목회자와의 만남,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관여 등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종교 활동을 위한 외국에서의 자금 지원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가족연구위원회(FRC)의 종교자유센터 아리엘 델 투르코(Arielle Del Turco) 소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중국이 외국 선교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中 ‘복음의 전사’ 복역 후 석방 당일 거리 전도

중국 후난성 헝양시 출신의 복음 전도자 첸웬셍(Chen Wensheng)이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19개월을 복역한 후 4월 2일에 산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이하 한국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복음 전도자 첸은 석방 당일 바로 아내와 함께 헝양시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차이나에이드(China Aid)’와 동역하며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한국 VOM의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의 복음의 전사”라는 별명으로 불려 온 첸웬셍은 거리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다가 100회 이상 체포됐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총 700일이 넘지만, 석방될 때마다 거리로 나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 내려진 징역형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첸웬셍은 2023년 8월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당국자들이 상하이 공항에서 그를 가로막은 뒤 헝양으로 돌려보냈다.

2023년 9월 헝양에서 구금 및 체포된 첸웬셍은 2024년 4월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4년 6월 20일에는 1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2일 마침내 형기

마치고 석방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법원이 그에게 중형을 내린 이유는 첫째, 중국 법원이 그가 여러 차례 체포 및 구금 됐는데도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기 때문이고, 둘째, 그가 청과물 시장과 교차로, 상점과 소수 민족 거주지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 및 단체 전도 활동을 반복적으로 조직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첸웬셍은 2025년 4월 5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족들의 중보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데산 교도소에서 헝양 시에 있는 호텔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한 자유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 해주세요.”

현숙 폴리 대표는 “첸은 석방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수감되기 전보다 훨씬 야외였지만, 그는 늘 그랬듯 미소를 잃지 않고 있으며 기쁨으로 충만하다. 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3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3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이윤준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미지역) 오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EM 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제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gmc.org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0:30 대학령년부(College) 오전 12:30  
유년부(K-2) 오후 10:30 학교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주일 예배 10:30 중고등부 10:30  
주일학교 10:30 대학령년부 12:30  
유년부(K-2) 10:30 학교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10:30 새벽예배(화-토) 6:00

**장수영** 담임목사

제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랑의 공동체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주일 예배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을 등이로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예배 8:00 중고등부 9:30AM  
2부 예배 10:30 학여원 오후 12:30  
EM 예배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주일 예배 8:00 중고등부 9:30AM  
2부 예배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주일 예배 8:00 중고등부 9:30AM  
2부 예배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 예배 8:00 중고등부 9:30AM  
2부 예배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곽덕근** 담임목사

온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예배 8:00 중고등부 9:30AM  
2부 예배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이충환**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iccc.office@gmail.com

주일 예배 8:00 금요일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nuribk.com/anc

주일 예배 1부 오후 12:30  
주일 예배 2부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 219-5434 www.sammool.org

주일 예배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 예배 10:3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7: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v.org

주일 예배 1부 오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 예배 1부 오후 9:45  
주일 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v.org

주일 예배 1부 오후 9: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6: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42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lvkcc.org/lvkc/index.php

주일 예배 1부 오후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wooriojoe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 예배 오전 7:45  
2부 예배 오전 9:10  
3부 예배 오전 12:00  
4부 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후 6:00(토) 오후 6:0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기도회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주일 예배 8:00 중고등부(Youth) 오후 11:00  
주일 예배(화-금)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6:00  
유아유치부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6:00  
초등부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6:0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크리스천 비지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MOTIVE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경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여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 → 1면기사 &lt; 英 대법원 “女 법적 정의 ..&gt;에 이어서

아울러 “이 판결은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정의는 명확해야 하며, 그 명확성은 권리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 소식에 여성인권단체뿐 아니라 J. K. 롤링(J.K. Rowling) 작가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롤링 작가는 SNS를 통해 “세 명의 용감한 스코틀랜드 여성이 전 영국 여성들의 권리를 지켜냈다”고 밝혔고, ‘섹스 매터스’(Sex Matters)는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게 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는 실질적이다. 여성 전용 피난처, 병원 병동, 텔의실, 스포츠 경기 등에서 ‘생물학적 여성’만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안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일이 늘었다”며 “이번 판결이 그러한 여차별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보수당 케미 베드노크(Kemi

Badenoch) 대표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라며 “당연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은 모든 여성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포 위민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는 여성의 법적 정의를 놓고 6년간 스코틀랜드 정부 및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에 맞서 싸운 끝에 승리를 거두며, 여성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와 사법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증명했다.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전기세 50~90% 절감\*\*\***2025년  
대박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고滴滴하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 ■ 강준민 칼럼

##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복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눅 1:49-53). 마리아가 드린 찬양 속에 조용한 혁명이 담겨 있습니다.

조용한 혁명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에 대한 이미지는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도를 부리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6하-27).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혁명적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나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난과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은총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 9:2-3).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전복은 무너뜨림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교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화목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전복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

시키셨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칼과 총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부활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갈 3:28). 이전의 계급과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조용한 혁명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혁명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전복하고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존중의 새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혁명은 폭력을 동반하지만 부활의 혁명은 평강으로 시작됩니다. 부활의 혁명은 폭력이 아니라 온유입니다. 부활의 혁명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습니다(엡 1:20). 부활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힘껏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 ■ 진유철 칼럼

##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승리로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뒤셀도르프의 순복음 교회는 예배당 위치도 좋았고 건물도 크고 훌륭했습니다. 한 때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였지만 리더십의 교체 시에 어려움을 겪어 수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1.2부 예배에 학생들까지 생각보다 많이 모여 놀랐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좀 무거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 마음이 밝아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헤어지지 않고 전부 함께 식당으로 갔는데, 3부 예배처럼 뜨겁고 화목하여 오래도록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쉬고 싶었던 저녁 식사였지만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에 계신 장로님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기에 순종하여 갔는데, 그 가정 저녁을 향한 기도에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귀한 섭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유럽총회 부활절 금식 성회’의 첫날 예배는 계속되는 이동과 시차 때문에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

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콧물감기나 기침도 이기게 해주셨고 약한 몸도 불들어주심을 체험하면서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각 지역, 노르웨이,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등 630명이 넘는 최대인원 기록으로 모여 금식성회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헤어지지 않은 시설의 수양관에서 하루 4번의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 이번에 많이 참석한 학생부 110명은 마지막 수요일 오후에 ‘유럽 부흥(Revival Europe)’을 외치며 노방전도까지 나가는 열정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지, 또 현금으로 성회를 돋고 어려운 유럽선교사님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물질로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제 설교를 독일어로 통역했던 내과 의사 장로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성



회가 되어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고 카톡 인사를 남기기도 했고, 영국에서 온 성도님들은 무려 14시간을 버스로 이동하여 돌아가서는 금요예배를 드리며 간증을 나누었는데, 받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다가오는 부활의 승리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음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누리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롬!

##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5/ 26(월)~27(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슬로, 바이블(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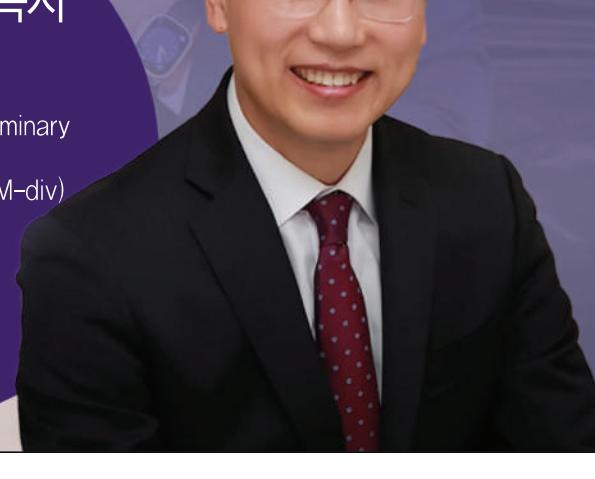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 예수 부활하였네

##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친양제  
CMFN  
[www.GodFamily.com](http://www.GodFamily.com)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493-0191



김철민 장로

##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1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주일4부예배(청년) 오후 1:45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 (토)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http://www.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EM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thejoylife.org](http://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1  
T. (213)351-9975 (Fax) 351-9975 e-mail [office@thejoylife.org](mailto:office@thejoylife.org)



이희문 담임목사

##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365일 영혼의샘예배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에즈마이야 금요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현장 영상예배 오전 6시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안병권 담임목사

## 효사랑선교회

HyoSarangus Mission

[www.huosarangusa.org](http://www.huosarangusa.org)



대표: 김영찬 목사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714)670-8004

## 평화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금요기도회: 저녁 7시  
Bible Academy: 수요일 저녁 7시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251-9191



김은목 담임목사

##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Anointing 친양워십 오후 7:30



이황영 담임목사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326-0300

## 새 한우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1818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 대흥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치/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 방주교회

주일예배 정오 12:00  
주일학교 정오 12:00  
수요예배 7:00



김영규 담임목사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무디고 담임목사

##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8:30 am / 10:30 am  
수요모임 7:30 pm  
새벽기도회 6:00am (화~금)/교회 및 zoom  
소망열린학교 10:00 am (금)  
주일학교 10:30 am  
Youth Group 10:30am (주일)  
대학부 10:30 am (주일)  
한국학교(zoom) 9:30 am ~ 11:50 pm (토)  
[www.somangusa.com](http://www.somangusa.co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성요셉 담임목사

## 씨미밸리침례교회

예배속에서, 삶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일예배 1부 9:45 am/2부: 11:15 am  
주일영어부예배 9:45 am  
새벽기도회 월~금 5:45 am  
수요자훈련 10:30 am  
금요찬양기도회 7:30 pm



반체근 담임목사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 은혜와평강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남재현 담임목사

## 아름다운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목 오전 6:00  
토 오전 7:00  
금요찬양집회 오후 7:30



이봉하 담임목사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T.(714)772-3100

##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주일 예배 2부 오전 11: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영어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748-6878



이승혁 담임목사

## 주님세운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325-4020



신용환 담임목사

##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준준 담임목사

## 멜리데교회

주일 1부 오전 8:30 (본당)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본당)  
토 오전 6:30  
중고등부 오전 10:40 (1층 중고등부실)  
유초등부 오전 11:00 (2층 유초등부실)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483-6625



고귀남 담임목사

##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www.pubtheo.org](http://www.pubtheo.org)  
T.(310)738-0485



류준영 목사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것을 네가 믿느라  
요한복음 11:25-26



## [사설] 영국 대법, '생물학적 성' 판결에 담긴 메시지

영국 대법원이 지난 16일 여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다고 판결했다. 성차별을 금지한 영국의 '평등법'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영국 사회가 이른바 '젠더 이념'에서 탈출하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공기관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여성의 범주에 '트랜스젠더' 여성과 포함시키자 스코틀랜드의 여성단체인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하여'(FWS)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제정된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이라고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그간의 '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영국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성 소수자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결정이 아니라 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FWS도 성 소수자를 중요하려는 게 아닌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게 당연하고, 그 기반 위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여성'과 '성전환 여성'이 동일한 성적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을 영국 법이 공식화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간 스코틀랜드 정부와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이 영국의 '평등법'에 근거

해 여성의 법적 정의와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적으로 동일한 성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한 셈이다.

영국 기독교인들과 교계 단체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 보도에 따르면 복음주의 연맹의 영국 지부장 피터 리나스는 "이 획기적인 판결은 분위기의 변화가 현실임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는 (영국이) 강경한 진보적 이념에서 벗어나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 한다"고 평가했다. '해리포터' 작가로 유명한 J.K.루링도 "FWS가 자랑스럽다"라면서 "이번 승소가 영국 전역의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했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영국 사회에 미칠 파장은 가히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육과 고용, 의료, 주거 등 '평등법'이 적용되는 민관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평등법' 시행 이후 성전환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했던 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시설에도 생물학적인 성 구별이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던 체육계도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영국 정부는 그동안의 성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보수당 케미 배드노크 대표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라며 "당연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은 모든 여성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15년 전 도입한 '평등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명시하면서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가 급속도로 확산한 유럽 내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영국의 이런 변화는 지난 1965년 인종관계법을 시작으로 1975년 성차별금지법 등 9개의 개별적인 차별 방지 관련 법이 2010년 11월에 '포괄적 평등법'으로 통합되면서 시작됐다.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 기존의 차별 금지조항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자들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영국의 '평등법'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낙태, 안락사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 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유화 확대: 영국 등에서 사회적 태도의 변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비율이 66%로 나타났고, 낙태와 안락사를 수용한다는 답변도 각각 48%, 47%로 나타나 1981년 조사에 비해 4~5배나 증가했다.

이런 영국 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낙태 센터 주변의 완충·배제 구역에서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와 일반인이 단지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평등법' 제정 이후 급진적인 '젠더 이념'에 볼모 잡혀 끌어들이 추락하는 모습으로 국내외에 비쳐진 게 사실이다.

그런 영국에서 대법원이 여성의 성을 생물학적인 성별 기준에 근거해 규정한 건 여성 인권 보호와 법적 명확성 회복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지난 6년간 여성의 법적 정의를 놓고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싸워온 스코틀랜드 여성들이 최종 승리함으로써 영국의 정치와 사법부에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명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인정한 행정명령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처럼 이 판결이 스코틀랜드나 영국을 넘어, 성별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는 세계 여러 나라에 중요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것은 분명하다.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성의 생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인정한 것이지만 남성 또한 이와 동일한 근거에 의해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는 '평등법' 시행으로 'LGBT'가 확산 일로에 있는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 주는 메시지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기회를 엿보는 국내 정치권에도 분명한 경종이 될 것이다.

### ■ 김한요 칼럼

## 예수님의 제자되기 원하는가?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제자는 말은 스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견습생(apprentice)을 의미합니다. 이번 순교지 딥방은 예수님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모두 십자가를 닦은 순교였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 마지막 감금되었던 감옥이 같은 감옥이었

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두 사람은 감옥 동창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에 다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간다는 주님의 대답을 듣고 맘을 고쳐먹고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꺼꾸로 매달려 순교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로마에서 두 번 구금을 당합니다. 첫번째 구금시는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행 28:30). 이때 골로새서 빌립보서 등을 썼다고 믿어집니다.

2년 후 석방되지만 당시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 뒤집어 씌우고, 그 본보기로 사도바울이 다시 구금되게 되고, 결국 참수당하게 됩니다. 그 현장은 지금 봄도을 씨년 하고, 실내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없는 겨울에 이 감옥에서 바울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제자 디모

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자기 걸옷을 가져오라 합니다. 요즘 같이 택배가 되는 시절도 아니고, 디모데가 그 걸옷을 가져가는 시간만 해도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로마에 재판 받기 위해 죄수의 봄으로 왔을 때는 로마에서 약 50km나 떨어진 삼관까지 마중 나왔던 로마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투옥된 지은은 그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방한복 한 벌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나를 버렸다"(딤후 4:16) 남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어느 은퇴 목사님의 말과 겹쳐져 가슴 한켠이 시려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로 불렸던 안드레 사도가 순교 당한 파트라를 향한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파트라 도시 전체에 차량 통제를 하는 바람에 들어갈 수 없어

서, 7시간 만에 다른데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어쩌면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에게 가려 빛을 보지 못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곳 그리스 파트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마침 아픈 총독의 아내를 암수하여 고쳐주게 됩니다. 이 계기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자기 아내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종용했지만,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내로 인해 총독은 안드레를 X십자가에 못박아 처형합니다.

X자 십자가 형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랜 시간 서서히 죽이는 처형이라고 하는데, 안드레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 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말씀 팔찌 손목 위의 은혜

간편하게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올리면

바로 성경경성이...

##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 단체주문 상담환경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하루의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로고나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용으로 추천!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법!

간편하게 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지금 경험해 보세요!



### 문의

기독일보 정다혜 실장(213-434-1170)

Email : chdailyla@gmail.com

[www.j1mart.com](http://www.j1mart.com)

\$13.99  
개인 및 소량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입 가능  
50개이상 단체주문은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상임회장  
진건호 목사

##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2부 예배 오전 11시  
GT Youth 예배 오전 10시 45분  
금요회복집회(금)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Website: <http://www.thegreattree.org/>  
3114 Old Denton Rd, Carrollton, TX 75007  
T. 972-904-3509

김귀보 담임목사

큰나무 교회  
THE GREAT TREE CHURCH

예수 부활하셨네

## 예수마을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유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주소 및 전화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http://www.lajvc.webchurch.kr)

예수 부활하셨네

## 서부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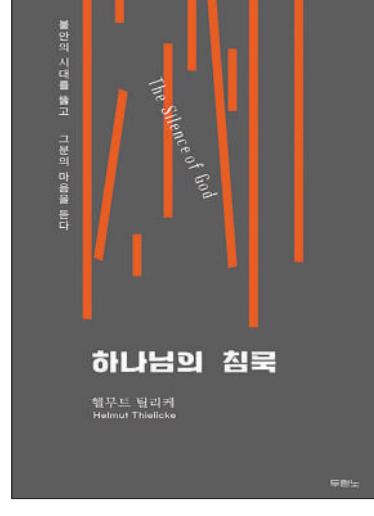
주일예배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07:3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화~토)

주소 및 전화

1880 W. 220th St. Torrance, CA 90501  
T.(310)328-7020 [main@wPCA.org](mailto:main@wPCA.org) <https://wPCA.org/>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의 침묵을 듣다

## 현대 사회의 불안과 고통 속, 침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침묵

Helmut Thielicke

## 하나님의 침묵

헬무트 틸리케 | 윤종석 역  
두란노 | 172쪽  
12,000원영혼의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리, 하나님의 침묵  
그 위대한 신비를 듣다!깊어 가는 혼돈의 시대에  
읽는 헬무트 틸리케!  
1942~1951년 격동기  
독일 한복판에 울려 퍼진  
열 편의 절절한 설교

책의 저자 헬무트 틸리케는 나치 치하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요 윤리학자이며 복음주의 설교자다.

전후 비극과 불안에 짓눌린 독일 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예언자적 설교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책에 실린 설교는 1942~1951년 독일 격동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풍랑의 시대를 뚫고 나온 그의 설교 10편에 담긴 선지자적 음성이 오늘날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침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현대인들의 영혼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공명하고 있다.

그 시대 독일의 격랑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또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고 싶은 진한 열망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아니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불안과 죄책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그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럼에도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적도 있을 것이다. 이럴듯 이 책은 단순한 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이 느끼는 고립감과 불안은 하나님 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시작 내리티브로 마태복음 15장 21~28절에서, 한 가나안 여자의 절규 어린 간구와 그에 대한 예수님이 침묵을 대조시키고 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마 15: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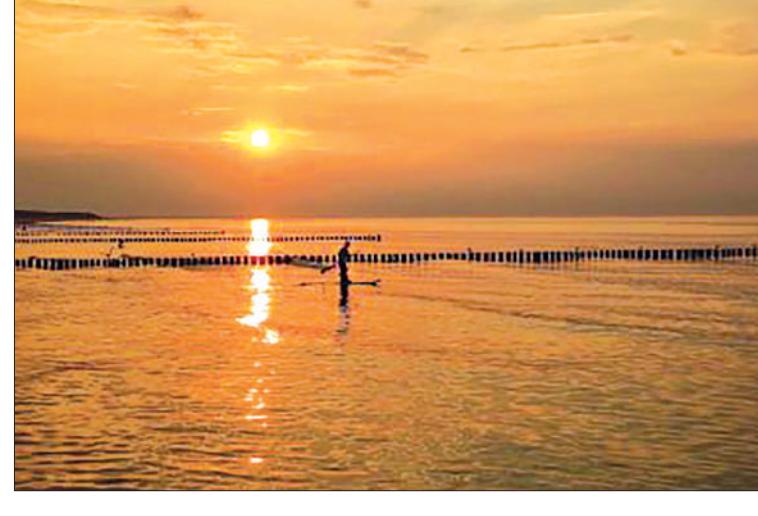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우리는 소리치고 절규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수천 번이나 왔다갔다 한다.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대개 침묵 이면에 그분의 더 깊은 뜻이 있다(39쪽)”고 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의 신뢰’라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침묵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필자에게 큰 위로가 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또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단순히 부정적 경험아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필자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앞으로 삶에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한 소통’에 대한 논의



▲©픽사베이

가 이어진다.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순히 기도를 통해 이뤄지는 것 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필자에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헬무트 틸리케의 <하나님의 침묵>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귀중한 책이다.

그의 깊이 있는 성찰과 통찰은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되었다.

이종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고문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 후서 1:7

For the Spirit God gave us does not make us timid, but gives us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  
2 TIMOT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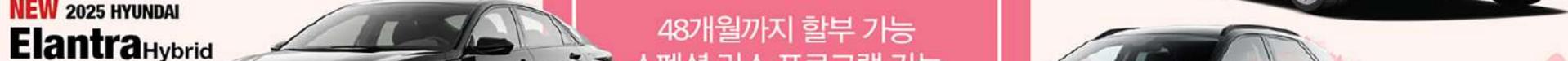
# 모임은 “용수산”

##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니콜라스 마스

## ‘가정의 미덕’ 주목한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가

베르메르 등에 영감 준 선각자 평범한 가정 모습 화면에 담아 수수하고 재치 있는 장면 감탄 가정 미덕 중시 기독교 가르침

전기 작가 아놀드 하우브라肯(Arnold Houbraken)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스(Nicoleas Maes, 1634~1693)는 대상을 부드럽게 포착할 수 있는 ‘숙련되고 매력적인 브러쉬’를 지녔다고 한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그가 인물과 옷차림, 기물, 배경과 기타 세부사항을 다루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네덜란드 도르트레히트에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마스는 유년시절 개혁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0대에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배운 제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렘브란트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훈련으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마스는 렘브란트에게 ‘오디니른(ordineren)’, 곧 역사화에서 이야기의 모든 측면이 잘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법을 배웠다. 말하자면 화면 속 인물들의 포즈와 배치를 다채롭게 하여 그들의 몸짓과 표정을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익혔다. 이에 더하여 니콜라스 마스는 렘브란트 스튜디오에서 ‘하우

딩(houding)’ 기법, 즉 명암을 교묘하게 분배하고 색상의 강도를 조절하여 공간의 환영을 연출하는 수법을 익혔다.

이 같은 조형훈련은 추후 그의 작업 세계에 큰 힘을 되었다.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마스의 작업은 차츰 자신의 것을 찾아간다. 역사화(성경 그림)보다는 일상생활의 장면들을 포착하는 등 장르화의 혁신적 화가로 부상한다. 피테르 드 호흐(Pieter de Hooch)나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같은 유력한 장르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도 바로 니콜라스 마스였다. 이런 면에서 마스는 장르화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스는 주로 가정의 평범한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아이를 재우는 여인, 바느질하는 여인, 양육하는 장면, 장보기와 채소를 다듬는 여인, 식전 기도를 드리는 여인, 성경책을 읽다 잠이 든 노인, 물레를 돌리는 사람, 시장에 다녀온 여인 또는 우유를 파는 여인, 집안 일을 하다 깜빡 잠이 든 시녀 등.

일상생활의 모습을 포착할 때 마스는 암스테르담 스튜디오에서 배운 ‘오디네겐’과 ‘하우딩’ 기법을 활용하였다. 후기작은 장르화보다 우아하고 세련된 초상화에 치중했다면, 도르트레히트 시절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주목하였다.



니콜라스 마스, 레이스 짜는 여인, 캔버스에 유채, 45.1x52.7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마스의 수수하고 재치 있는 장르화 장면에 감탄하였다. 여성은 이러한 친밀한 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마스가 예찬의 대상으로 삼은 장면들은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기념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아리안 반 쉬텔렌(Ariane van Suchtelen)의 말을 빌면, 어떤 예술가도 이런 주제를 그린 적이 없었고 그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처럼 마스의 장르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특별한 관심도 있었지만, 가정을 중시하던 당시 문화적 배경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도시의 권위는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데 두었다고 한다. 다른 유럽 지역보다 평균 가족 수는 4.75명으로 적었으나, 훨씬 더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때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가정의 미덕을 중시한 기독교적 가르침이었다.

한 예로 개혁교회 설교자 피트루스 위트브론힐(Petrus Wittewrongel)은 창세기 2장 18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를 남자의 돋는 배필로 세우셨으며 “머리가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듯 신랑도 신부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사랑을 순종에 종속시키기보다 오히려 고양시켰다. “모든 우정과 사랑 속에 사랑의 불씨를 지펴서, 부부애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몸도 이 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야곱 카츠(Jacob Cats) 역시 남편과 아내를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맞물려 도는 한 쌍의 맷돌에 비유함으로써,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에게 있어 결혼은 ‘동거’가 아니라 ‘연합’이었다. 부부는 “분주함과 안식 속에, 근심과 기쁨 속에, 순애와 이

득 속에, 오락과 노동 속에, 위험과 축복 속에” 함께하는 존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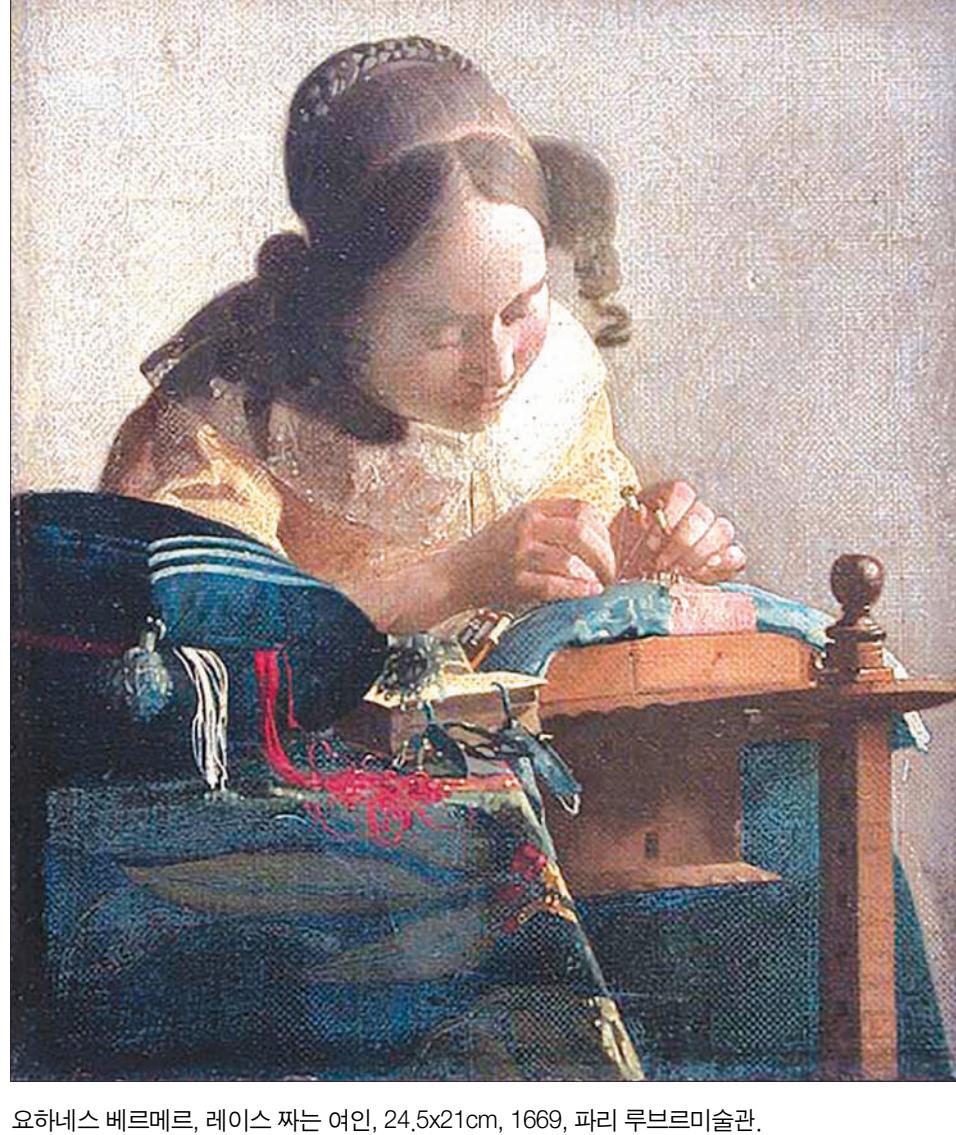
〈레이스 짜는 여인〉(1656)을 보면, 젊은 여성의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레이스를 짜고 있다. 화가는 젊은 주부가 양육과 가사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엄마 옆에서 살이 포동포동 찐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도 눈에 띈다. 아이의 손에는 자그마한 장난감이 들려 있는데, 엄마가 줄어 준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 떨어진 컵은 아이가 무심결에 떨어뜨린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집안의 무질서를 암시하기보다, 아이가 팔린 가정의 자연스런 모습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어머니의 상의, 아기의 모자, 그리고 식탁 보의 빨간 색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가정에 흐르는 따듯함을 전달하고 있다. 남편은 출타 중이지만, 가정 내 훈훈한 온기를 느끼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고급 가구나 장식물이 없지만, 사랑만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동일한 모티브를 취한 베르메르의 〈레이스 짜는 여인〉(1669년경)은 마스의 작품보다 13년이나 늦게 나온 것이다. 두 작품의 차이는 제작년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베르메르의 수작 〈레이스 짜는 여인〉이 탁월한 솜씨로 일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되살려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마스는 여성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등장시켜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마스는 베르메르가 놓친 것을 보충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금세라도 아빠가 집안으로 들어와 아이 뺨에 입맞춤을 하고 안아줄 것만 같다. 사치와 허영을 멀리하고 단란함 속에 피어난 네덜란드 가정의 절제와 행복을 보여준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레이스 짜는 여인, 24.5x21cm, 1669, 파리 루브르미술관.

## 예수 부활 하셨네!

2025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 오직 은혜입니다!

\* 오직 감사입니다!

\* 오직 순종입니다!

He is Ri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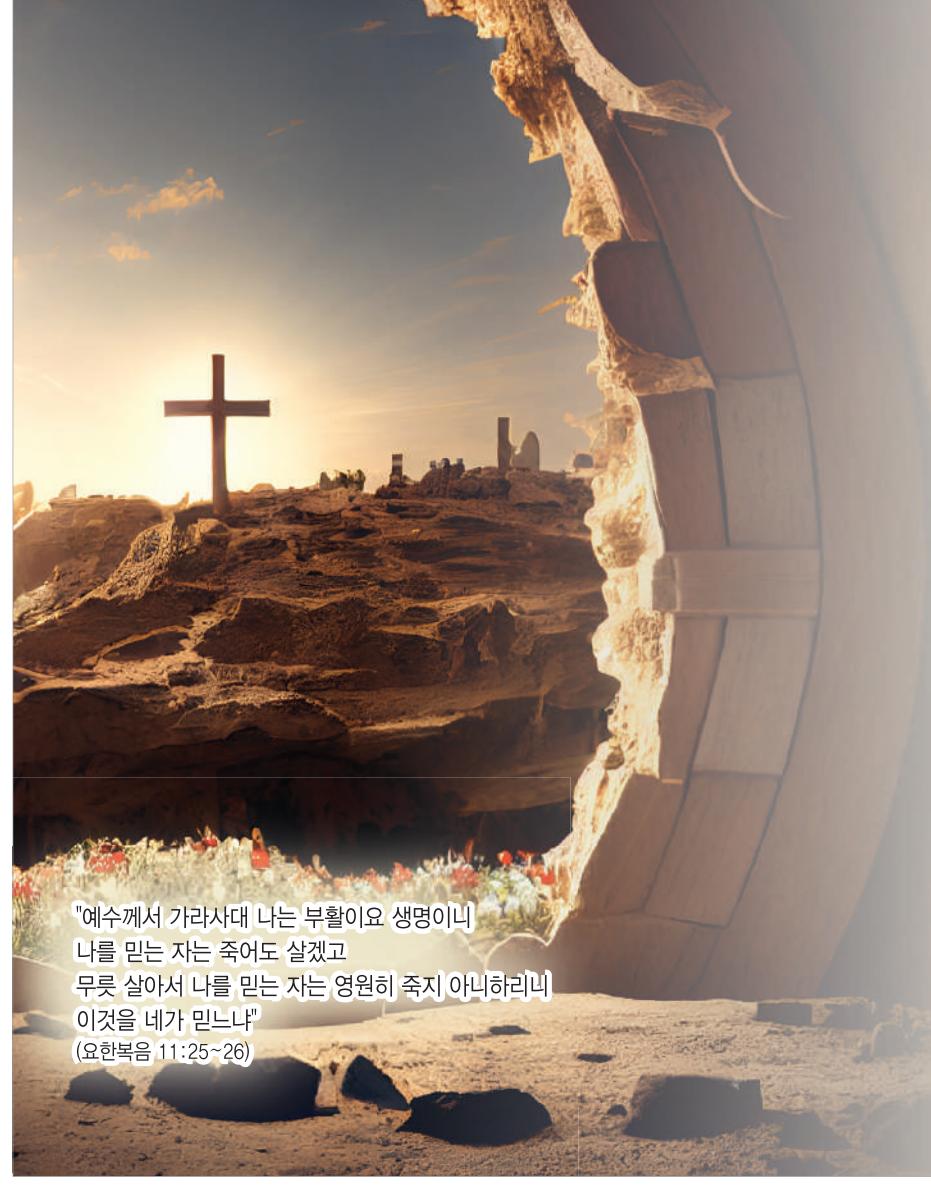
성화장로교회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예수 부활하셨네

##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YDC한어대학청년부  
4부예배 (청년대학부) 주일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admin@thanksgivingchurch.com  
T. (714)521-0991 Fax:714-521-4636  
<http://thanksgivingchurch.com/>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CHURCH

# 부활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

[www.gcjc.org](http://www.gcjc.org)



신승훈 담임목사

## WORSHIP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전통예배)	8:00am
주일예배 2부 (영광예배)	10:30am
주일예배 3부 (청년예배)	1:00pm
주일예배 GCEM (영어)	1:00pm
주일예배 라티노(스페인어)	5:00pm

교구모임 TEAM(20대 청년)	2:45pm
교구모임 JABEZ(30대 청년)	2:45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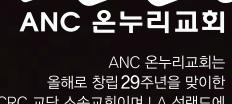
  

수요예배	7:30pm
금요예배	7:30pm
새벽예배(월~토)	6:00am

 주님의 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E-Mail: [glorygcjc@gcjc.org](mailto:glorygcjc@gcjc.org)

  
ANC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29주년을 맞이한  
CRC 교단 소속교회이며 LA 쟁리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CELEBRATE EASTER

His STORY does not end here



ANC 온누리교회

##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ANC 온누리교회가 이제 29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하여 힘찬 흔적들이 열매로 맺혀있고,  
이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예배	1부 7:30 am 2부 9:30 am 3부 11:30 am (Passion Worship)
금요워십	7:45 pm (금)
새벽기도회	5:30 am (월~금)/6am (토)

주일학교/중고등부 1부 9:30 am  
2부 11:30 am

영어회중(ANCC) 1부 9:30 am  
2부 11:30 am

장애인 예배(GM) 9:30 am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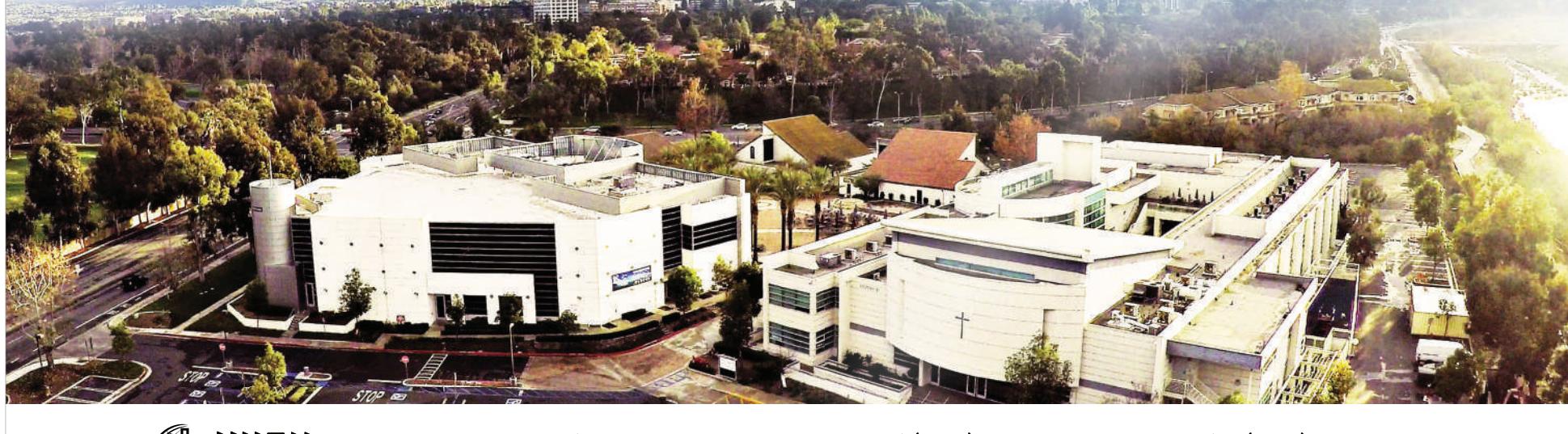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 하셨습니다! ”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본당
-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 / 체육관
- 주일 日本語 礼拝: 오후 1시 15분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본당
- 토요 힙시바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 수요 예배: 매주 오후 7시 30분 / 본당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

# 나성영락교회

하나님의 사람 | 하나님의 나라

나성영락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욱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3가지의 목표, 하나님을 섬기며(섬김), 이웃과 나누고(나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전파) 한인교회로, 지역공동체와 한인사회, 미주와 세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더욱 힘을 내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 예배안내

- |         |          |
|---------|----------|
| 주일예배 1부 | 7:30 AM  |
| 주일예배 2부 | 9:00 AM  |
| 주일예배 3부 | 11:00 AM |
| 교육부예배   | 11:00 AM |
| EM예배    | 11:00 AM |
| 청년부예배   | 1:30 PM  |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의 소망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http://youngnak.com/)

#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진유철 담임목사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 Tel. 323-913-4499

lafgusa@yahoo.com 유튜브 채널 - '나성순복음교회' @LAFGCTV



## 예배안내

- |               |   |
|---------------|---|
| 1부            | 오전 7:30 본당                                      |
| 2부            | 오전 9:30 본당                                      |
| (열린예배) 3부     | 오전 11:45 본당                                     |
| 세벽예배          | 월 - 토 오전 5:30 / 본당                              |
|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
|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
| 영아부 예배(0-2세)  | 주일 오전 9:30, 11:45 / 본당 영아부실                     |
| 유치부 예배(3-5세)  | 수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2층 유치부실                     |
|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9:30(영어), 11:45(한국어) / 구 교육관              |
|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AWANA) / 구 교육관                     |
|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30 (EM예배실),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
| 청년 예배         | 주일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
| EM 예배         | 주일 오전 11:45 / 본당                                |
| 실버드림대학        | 목요일 오전 9:30 / 신 교육관                             |
| 토요한글학교        | 목요일 오전 9:00 / 신 구 교육관                           |
|               | 토요일 오후 9:30 / 신 구 교육관                           |